

■ 연구원 소식

○ 지부 및 회원 소모임 지원 사업 접수기간 연기 (~ 3월 13일)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은 문화강좌나 역사기행, 문화기행 등을 통해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연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전주지역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여러 지역에 자리하고 계신 회원을 일상적으로 모시지 못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조금씩 넘어서기 위해 2020년에는 지부 및 회원 소모임 지원 사업을 보다 다양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구원에는 서울경기, 광주전남, 전북 세 지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부별 또는 지역을 넘어 회원 소모임을 통한 사업 계획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해주신 지부 및 회원 소모임 사업에 2020년 연구원 예산을 배치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단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접수기간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영화관람, 독서토론, 체육활동, 사진강좌 등 다양한 취미 활동도 가능합니다. 지부별 또는 5인 이상 회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자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안해주시면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 선정 후 예산지원과 인력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 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연구원 이사회 개최가 연기되어 소모임 지원 사업 접수 기간을 3월 13일까지 연장하오니 지부 및 회원 소모임 지원 사업에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링컨의 마지막 모습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전임 연구원)



암살당하기 직전의 링컨과 영부인 (재현된 당시 상황 스프링필드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정직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1860년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 링컨이 당선되자 제일 먼저 남 캐롤라이나가 연방에서 탈퇴하였고 이듬해인 1961년 2월에 7개주가 모여 '남부연방'을 결성하였다. 이는 링컨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1개월 전이다. 그리고 링컨이 취임한 후 1개월 8일 만인 4월 12일에 남부연합군이 남 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 있는 섬터 요새를 폭격하였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희생된 남북전쟁의 서막이다.

섬터는 연방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요새인데, 남부군이 침입하여 이곳에서 펠력이던 성조기 게양대를 파괴하였다. 국가의 상징인 성조기의 찢김으로 북부에서는 "성조기가 남부군에 의해 짓 밟혔다."며 분노의 함성이 일어났다.

이 사건의 직전까지만 해도 정당에서 노예해방, 남부 탈퇴 등에 대해 내분이 있었으나, 이 내분은 정지 되었고 링컨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일치단결하였다. 미국이 독립을 쟁취하던 그때부터 80여년 하늘에 휘날렸던 성조기가 찢겨졌다는 것에 대한 공분이 북부의 사람들을 한 마음 되게 만들었다. 이는 또한 링컨으로 하여금 미국을 주도하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곧 링컨은 남부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원병을 모집하였다. 7만 여명을 원했는데, 9만 여명이 소집에 응한 것만 보아도 링컨의 호소에 얼마나 호응하였나를 알 수 있다. 전쟁 와중에 링컨은 1863년 노예해방령을 선포하였다. 당연히 해방된 노예들이 속속 북군에 입대하였음은 물론이다. 쫓고 쫓기는 남북전쟁은 1863년 7월 1일부터 나흘간에 벌어진 게티스버그의 전투에서 결판이 났다. 남군 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북군 사령관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 서명을 함으로서 남북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고 결국 북군의 승리, 곧 링컨의 승리로 끝이 났다.



게티스버그의 치열한 전투 장면 기록화(스프링필드 링컨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

비록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지만 링컨의 정책에 반기를 세력들은 도처에 각을 세우고 있었다. 특히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남부 사람들의 뿌리 깊은 관념은 어찌할 수 없는 링컨에 대한 증오심이 되었다. 그러나 누가 알았겠는가! 증오심을 그렇게 빨리 행동으로 나타낼 줄을!

링컨 암살의 그림자는 2년 전부터 드리워졌다. 링컨 암살 결사대가 재력 있는 인사들의 지원 받으며 비밀리에 결성되었다. 여러 가지 소문이 돌기도하였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펜실베이니아의 한 작은 여관의 주인이 1864년 8월 어느 날 창문에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서 쓴 글귀“아브라함 링컨은 1864년 8월 13일에 이 세상을 떠났다.”를 발견했다. 그러나 여관 주인은 그 날짜가 이미 지났고 해서 정신나간자의 소행으로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이로부터 8개월 뒤 암살이 대서특필 되었을 때야 부스라는 배우가 자기 여관에 묵은 사실을 떠올리고 그때의 창문의 글씨가 링컨 암살을 암시하는 것이었음을 뒤늦게 알았다.

링컨은 1865년 4월 14일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그날 저녁 영부인 토드와 함께 포드 극장에서 대통령 특별석에 앉아 연극공연을 관람하고 있었다. 이때 남부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버지니아 출신 배우 존 윌크스 부스가 문을 열고 들어와 링컨의 머리에 총을 발사하였다. 눈 깜짝 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있는 링컨은 급히 인근의 집으로 옮겨졌다. 그런 상태로 9시간의 사투 끝에 다음날 아침 7시에 숨을 거두었다.

링컨의 유해는 워싱턴을 출발하여 스프링필드 자택을 거쳐 스프링필드 근교에 있는 묘원에 묻혔다.



기념비 내부에 있는 링컨의 묘

■ 천년 암자에 오르다

<오산 사성암> 다섯 번째 이야기 “소원바위와 도선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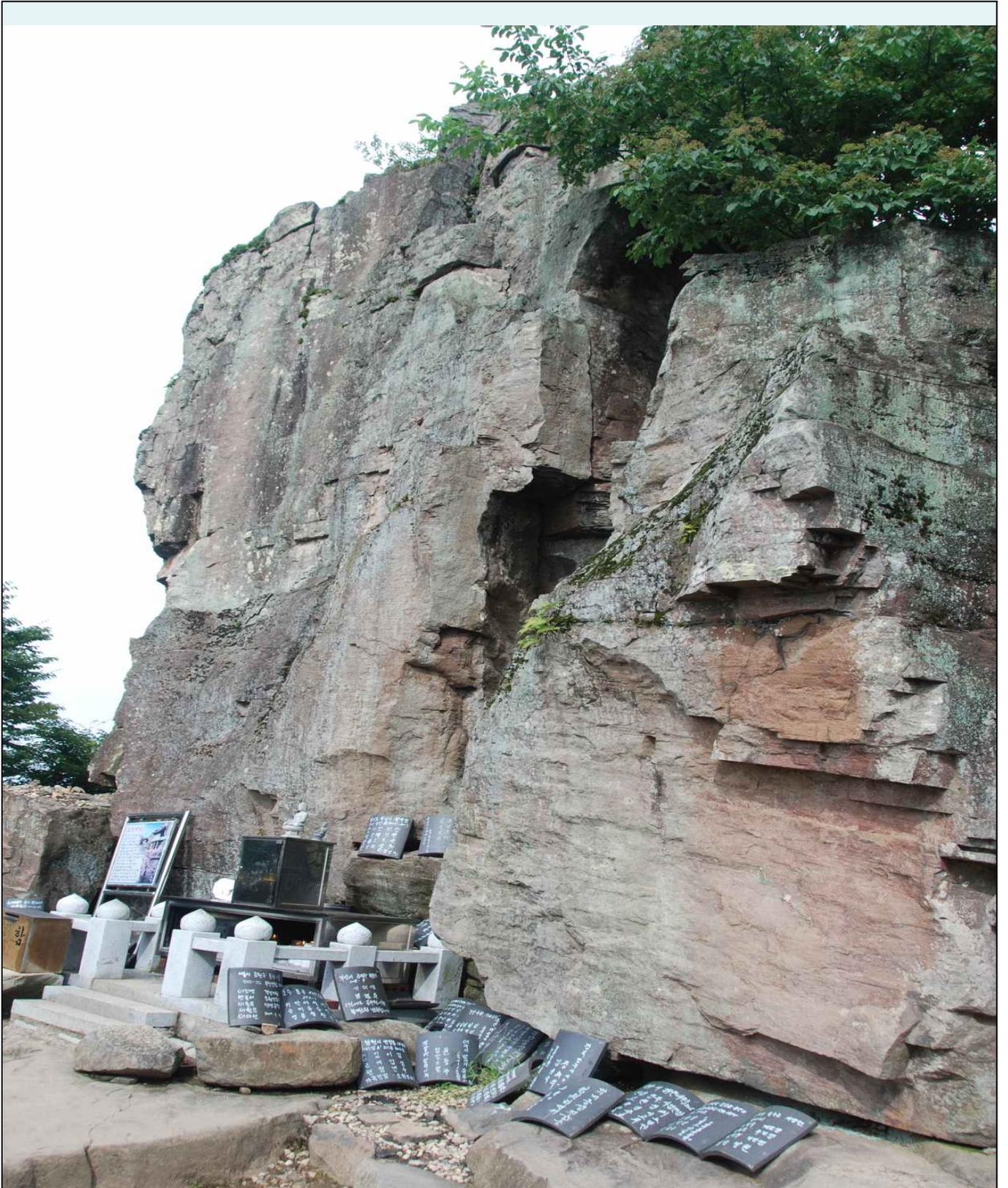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자연과 인공의 조화는 늘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다. 이 숙제에 대한 해답은 사성암에서 얼마간 찾을 수 있다. 사성암에서는 자연의 틀을 전혀 깨지 않았다. 자연이 부여해 준 기존의 틀을 고스란히 살린 채, 여기에다가 정성스럽고 진지한 인간의 손길을 보탰다. 그래서 한층 자연스럽고 세련된 분위기가 차츰 숙성되었다. 어서 빨리, 얼른 해치우자며 서둘러서 보탠 기계적인 힘이 아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공을 기울인, 애정 가득한 손길의 힘이다.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음에, 사성암은 손때가 진득하다. 아무 곳이든지 카메라 앵글을 들이대도 마냥 그림이 된다. 잡석들 하나하나가 이제는 소중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녀을 앗아갈 만한 풍치를 자아낸다.

사실 필자에게 사성암 방문은 열 번을 넘어간다. 이 근처를 지날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서라도 찾고야 말던 사성암이다. 고결하고 아름답다는 이유 하나가 이토록 강인한 흡인력을 지닌다. 산신각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두 등치로 이루어진 '소원바위'가 우뚝 솟았다. 소원바위에는 슬픈 전설 한 꼭지가 남았다.

옛날에 오산 자락에 금슬 좋은 부부가 살았는데, 어느 날 하동으로 뗏목을 팔러 간 남편이 기약한 날짜가 되도록 돌아오질 않았다. 하루하루 목 빠지게 남편을 기다리던 아낙은 마침내 하동 쪽이 내려다보이는 이 바위 위에 올라와 남편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먼동이 트는 새벽부터 섬진강이 석양빛으로 붉게 물들 때까지, 남편을 기다리던 아낙은 그리움에 지쳐 드디어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얼마 후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바위 위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변한 아내를 발견하고, 슬픔에 겨워 강물로 몸을 던졌다.

소원바위는 '뿔바위'라고도 불린다. 아내 뒤를 따르고자 남편이 강물로 뛰어내렸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전설 속의 변함없는 사랑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맑고 푸른 섬진강물로 흘러 내린다. 애절한 사랑은 굳세고 단단한 소원바위에 한으로 맺혔으니, 바람의 소리까지 도막도막 갈라지는 곳이다. 이제 소원바위는 부부처럼 다정하게 나란히 섰다. 하늘이 아니면 갈라 놓을 수 없는 사랑의 힘으로.



소원바위 | 옛 사랑은 이제 아련한 전설로 남았으니 바위도 무연한 표정으로 굳어지고 말았다.

산신각과 '도선굴'은 서로 이웃하였다. 도선굴을 만드느라 한 걸음 내디딘 암벽 사이를 비집고, 산신각이 가까스로 작은 몸통을 끼워 넣은 형국이다. 그래도 산신각은 결코 왜소하거나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좁은 공간이나마 어렵사리 장만해서, 소박하지만 최선을 다한 가룩한 정성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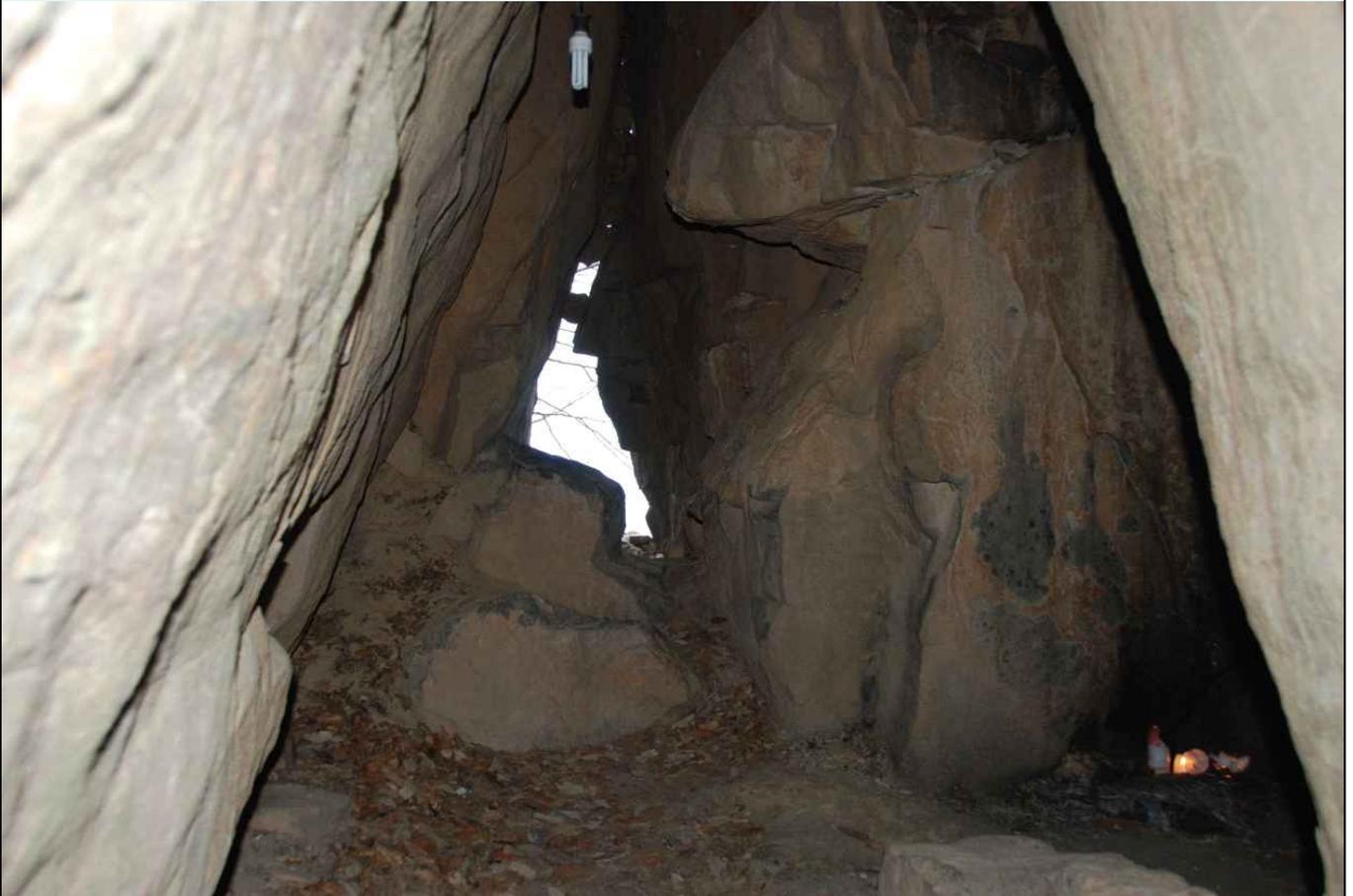
산신각은 오산을 주재하시는 산신을 모시고 북쪽을 향해 섰다. 앞쪽으로 지리산의 웅장한 모습과 너른 들판에 일구어진 구레음이 상쾌한데, 등지고 있는 산신각에 비해 턱없이 넓게 트인 시야다. 산신각의 작은 몸집에서 나오는 웅혼한 배포와 기상이랄까?

산신각과 도선굴 사이에는 야트막한 돌담이 지나간다. 돌담 끝 오른편의 으스스한 곳에 산신각의 연통이 보인다. 이 작은 연통도 자연석과 기와 조각을 이용해 만들었는데, 다소곳한 자태가 슬며시 나그네들의 발걸음을 묶는다.



산신각 | 소박했던 옛 모습이다. 지금 가보면 지나친 단장으로 수줍던 미소를 잃었으니 아쉽기만 하다.

연통의 바로 옆이 도선굴 입구다. 도선굴은 도선국사가 도를 닦았다는 굴인데, 남북으로 뚫렸다. 10m가량 되는 굴 한가운데에 이르면, 한쪽에 몸을 숨길 만한 공간이 펼쳐진다. 맞바람을 피하기에 적합한 장소다. 제법 아늑한 이곳에는 지금도 틈틈이 촛불을 켜 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



도선굴 | 육신 하나 겨우 누인 스님은 밤마다 무슨 상념에 빠지셨을까?

앞서 설명한 대로, 도선국사는 승속을 따지지 않고 우리 민족 모두가 경외하는 분이다. 천년 넘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스님의 체취는 대부분 사라졌다. 그러나 이 땅을 복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스님은 음양오행과 풍수지리 이론을 바탕으로 커다란 사찰들을 삼천리 방방곡곡에 남겼다. 우리 산하가 지니고 있는 결점과 허점을 보충하기 위한 비보裨補의 조처였다. 사성암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남원시 산내면에 자리한 실상사가 대표적인 사찰이다.

도선굴을 빠져나오면, 지리산과 섬진강에 구례 들녘이 조화를 이룬 장엄한 풍광이 우리를 기다린다. 하늘 위에 떠서 내려다보는 느낌이니, 이 아름다운 경치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오산으로 불러들였나 보다. 『택리지』를 남긴 이중환 선생도 과연 이곳에 올라 보시고, 계곡 가의 길지로 열린 구례의 '구만촌'을 곱았을까? 들판의 동쪽 끝으로 운조루와 곡전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섬진강과 구례들녘 | 도선굴 밖에 펼쳐진 구례읍과 들녘. 날이 맑으면 지리산도 바짝 다가온다.

다음 주는 <오산 사성암> 여섯 번째 이야기 “운조루와 곡전재”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